금리상승기에도 마냥 웃을수만 없는 보험사

운용수익 오르지만, 채권평가손도 커져 "딜레마"

경기둔화, 금리상승 기대 어려워
금리위험액 축소 위한 전략 실행
금리부 자산 확대 기조 유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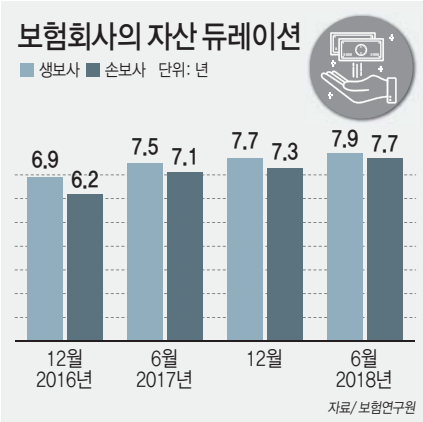
통상 금리가 상승하면 주로 채권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운용자산 이익률이 오르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다지 호재는 아닌 모양이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가치 하락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주로 안전성이 높은 장기채권에 투자하는데 경기둔화로 장기금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국내 채권투자액은 325조5161억원으로 총 운용자산(676조2513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외화유가증권 투자액(94조3405억원)도 대부분 채권에 투자됐다.

손해보험사의 국내 채권투자액과 외화유가증권 투자액은 각각 81조7425억원, 28조7655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평균 3%대를 기록했다.



생명보험 상위 8개사를 보면 삼성생명 3.9%, 한화생명 3.6%, 교보생명 4.0%, NH농협생명 2.9%, 미래에셋생명 3.2%, 오렌지라이프 3.7%, 동양생명 2.9%, 신한생명 3.4% 등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3.4%, 현대해상 3.3%, DB손보 3.5%, KB손보 3.2%, 메리츠화재 4.5%, 한화손보 3.9%, 롯데손보 3.5%, 흥국화재 3.4% 등이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4% 이하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록해왔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안정성이 높은 장기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 운용자산 이익률〉

2018년 3분기 기준 (단위 %)

구분		운용자산 이익율
생명보험	삼성생명	3.9
	한화생명	3.6
	교보생명	4
	농협생명	2.9
	미래에셋생명	3.2
	오렌지라이프	3.7
	동양생명	2.9
	신한생명	3.4
손해보험	삼성화재	3.4
	현대해상	3.3
	DB손보	3.5
	KB손보	3.2
	메리츠화재	4.5
	한화손보	3.9
	롯데손보	3.5
	흥국화재	3.4

/자료=금융감독원

채권금리가 오를 경우 주로 채권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채권 운용 수익률 증가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저축성 보험의 역마진도 축소될 전망이다. 과거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5% 이상 고금리 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했다. 특히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을 주로 팔았던 생보사들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운용자산 이익률이 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에 시달려 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고객에 주기로 약속한 금리는 평균 4.14%인 반면 운용자산 이익률은 평균 3.6%에 그쳤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금리 상승은 운용자산 이익률 개선과 새로운 자금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손해보험 업종보다는 고질적인 이차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보험 업종에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상승이 보험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채권가치가 떨어져 현재 보유 중인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제표상 증권을 만기보유증권 계정으로 분류하면 장부가격과 이자만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 계정에 쌓으면 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에 반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생·손보사의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각각 346조2930억원, 140조6404억원이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여력(RBC)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장금리상승 충격 시 보험사의 RBC비율이 규제수준(1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것도 변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둔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장기금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들은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2.5~2.7%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면 금리위험이 큰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액 축소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금리부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韓 부동산 '그림자금융' 470兆"

금융연구원 "이 중 80兆 부실위험"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470조원에 육박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경우 이 가운데 약 80조원은 부실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조달하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잔액은 469조7000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류별로는 부동산신탁 수탁액이 24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대체투자펀드 규모도 급증하면서 1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보험사나 증권사 등 비(非)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41조1000억원, 부동산 유동화 증권은 23조8000억원, PF 채권 보증 및 신용보강이 22조2000억원, P2P(개인간) 부동산 대출이 1조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에 관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은행 만큼 건전성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시장 경기에 따라 흔들릴 여지가 크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관련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꾸준히 커졌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부실화 등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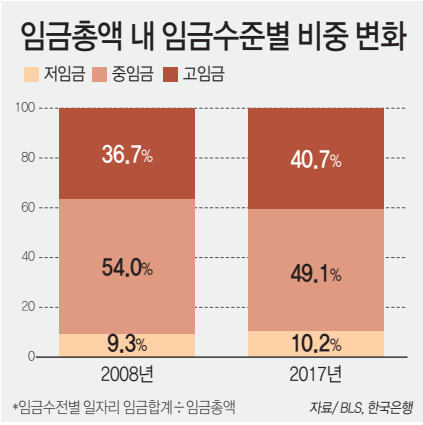
美 고용호조에도… 양극화 심화

미국 노동시장은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임금·저임금 노동구조 탓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실업률은 3.9%로 1969년(3.5%) 이후 4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임금상승률은 2015~18년 2.4%로 금융위기 이전 7년간(2000~2007년) 평균치인 3.3%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임금 취업자수는 줄어 들었으나 고임금, 저임금 취업자수는 늘었다.



2008~2017년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0.6%씩 증가했다. 이는 고임금, 저임금 취업자수가 각각 1.8%, 1.7%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중임금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 0.2% 줄었다.

/김희주 기자

청약 접수만 해도 'TV·아이패드'가 펑펑!

건설사 기해년 첫 분양 마케팅 봇물
경품·털모자 캠페인 등 이벤트 다채

건설사들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분양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규제 방침과 새로운 청약 제도 시행,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아파트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한껏 움츠러든 상태다. 건설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로 관심을 끈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 중이다.

상품은 삼성 65인치 TV와 애플 아이패드, 키친아트 소렐 냄비 3종 세트 등이다. 청약 접수한 내용을 인증만 해도 원터치 텀블러와 후라이팬 등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짜리 4개동, 아파트 363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등으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한 건설사도 있다.

삼호와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의 1월 분양에 앞서, 분양홍보관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생아를 위한 털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이 캠페인은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방문 고객들이 털모자뜨기를 통해 개발도상국 저체중·저체온의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완성된 털모자는 국제구호개발기구를 통해 전달된다.

1월 분양되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는 계양구 효성동 853-24번지 일원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로 삼호와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164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84㎡ 83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반도건설은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개관 전 온라인을 통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퀴즈를 푼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무선청소기와 자이글, 4구 후라이팬, 고급타올세트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품 지급은 모델하우스 오픈 3일간 이뤄진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11개동, 전용면적 35~84㎡, 889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2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다른 지방에서도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동화건설이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 조성하는 '죽전역 동화 아이위시'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삼성 65인치 TV, 삼성 노트북, 삼성 로봇청소기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7층, 3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2~104㎡의 중대형 아파트 392가구로 구성된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도 투자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첫 오피스텔로 관심을 받은 '스마트 플러스 전주'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계약자 및 계약자 소개 고객 대상으로 황금돼지 1돈, 고급 안마의자, LG스타일러, 삼성 빨래건조기, 다이슨 청소기 등을 증정한다.

'스마트 플러스 전주'는 오피스텔과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그 중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9층, 전용면적 18~22㎡, 98실로 구성된다.

대구시 유성구 관평동에 조성되는 '관평동 포레안' 오피스텔도 계약자에 한해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제공하는 경품 증정 행사를 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2~46㎡의 소형 오피스텔 402실로 구성되며 복층 설계가 적용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다양한 이벤트 진행중인 분양 단지들 /자료=각 사

진행 이벤트	단지명	전용면적(㎡)	총세대(일반분양)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대상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39~84 (46~84)	1046~830
온라인 퀴즈 이벤트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35~84 (59~84)	889~623
청약자 대상 추첨 이벤트	죽전역 동화 아이위시	82~104	392
황금돼지해 맞이 황금돼지 1돈 증정 등	스마트 플러스 전주 오피스텔	18~22	98
계약자 대상 경품 증정행사	관평동 포레안 오피스텔	22~46	402